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새벽 잡지

2026년 6월

목차

'새벽'의 하이라이트	2
오순절	2
국제 성경 연구회	22
데보라와 바락	22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다	26
요나단과 다윗 - 신실한 친구들	30
용감한 선지자 아모스	34
기독교인의 삶과 교리	38
확증된 약속	38

성경과 함께 읽어보세요!

오순절

**“오순절 날, 모든 신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불꽃이나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나 그들 각자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1-4

기독교 세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종교적 신앙의 기초로 인정합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나신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신성한 영의 본성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지극히 중요한 네 번째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깊은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오순절입니다. 이번 고찰에서 우리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 역사 속에서 이 특별한 날의 기원,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순절(Pentecost)”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세 번만 등장하며, 그리스어 단어인 만큼 신약성경에만 나타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용례는 서두에 인용한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도 사용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에베소를 우회하여 배를 타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곳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입니다. “나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 이 두 구절에서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묘사된 성령 강림이라는 주목할 만한 사건 그 이상이었다는 점이 암시됩니다. 오순절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절기 중 하나로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신약 시대에 오순절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세 가지 연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이 절기를 “수확절”과 “칠칠절”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16절에서는

‘수확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절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 년에 세 번 나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고... 또 추수절[오순절], 곧 밭에 뿌린 네 수고의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와, 해가 끝날 무렵 밭에서 네 수고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지키는 수확절을 지키라.”

이 명절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신명기 16장 9, 10, 16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를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수확절에 곡식을 처음 베기 시작할 때부터 일곱 주를 세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추수절을 지키라. 그분께 받은 복에 비례하여 자원 예물을 드리라. ...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해마다 이 세 절기, 곧 무교절과 추수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 이 절기들 마다 모든 남자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야 하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지 않고는 그분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칠칠절은 출애굽기 34:22와 민수기 28:26-31의 두 곳에서도 언급됩니다.

레위기 23장은 오순절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수확절’과 ‘칠칠절’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달 열네 날

저녁에 여호와와 유월절이 있다. 같은 달 15일은 무교절이다. ... 첫째 날[무교절의 첫째 날—첫째 달 15일]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를 가져야 하며, 그 날에는 어떤 노역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무교절의 첫째 날은 “거룩한 집회”, 즉 특별한 안식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역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이 경우, 그것은 매주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집회인 특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0, 11절을 이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거둘 때, 너희는 거둔 소산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여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니, 안식일 다음 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리라.” 이스라엘 곡식 수확의 첫 열매인 이 단이나 한 줌을 “흔드는” 일은, 앞서 언급했듯이 15일인 특별한 안식일 “다음 날”인 첫 달 16일에 행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23:15, 16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특별한 제물로 드릴 곡식 단을 가져오는 날[첫째 달 16일]부터 일곱 주[49일]를

세라.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즉 50일 후까지 계속 세십시오. 그 때 여호와께 새 곡식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 즉 추수절이었습니다. 이 절기가 ‘칠칠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첫 열매 단을 드린 날로부터 7주와 하루를 더 세어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어 ‘펜테코스트(Pentecost)’는 ‘오십 번째 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연도 계산법에 따라 오순절 날짜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사이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짜는 2026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의 목적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수확의 첫 열매에 대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였으며, 이에 따라 ‘수확절’이라는 두 번째 이름도 붙게 되었다. 이는 특별한 수확이었다. 채소나 과일의 수확이 아니라 곡물, 특히 밀의 수확이었다. 이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절기 동안 많은 제물이 드려졌다. 번제, 소제, 전제, 속죄제, 화목제 등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은 밀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16-20

16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절기의 특별한 제물은 “새 곡식 제물”이었습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각 거처에서()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은 두 덩이의 흔들 제물을 가져올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밀 수확의 첫 열매로 만든 두 덩이의 떡을 드려야 했다. 이 떡들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와 헌사로 주님 앞에서 흔들어야 했다. 50일 전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흔들며 드렸으나, 그때는 첫 열매 중 한 줌에 불과했다. 이제 그들은 본격적인 밀 수확을 시작했고, 방금 수확한 것으로 만든 두 덩이의 빵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렸다. 그들의 수확은 이제 모든 밀이 다 모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

이스라엘의 추수절, 즉 칠칠절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신약성경의 오순절과 구체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먼저, 이 절기의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레위기 23장 5절에서 인용했듯이, 첫 달 14일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더 큰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1:29). 예수님의 죽음은 정확히 이 날짜에 일어났습니다. 다시 레위기 23장 10, 11절을 보면, 이틀 후인 첫 달 16일에 첫 열매의 단, 즉 한 줌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지 이틀 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유대력 첫 달 14일의 일부, 15일 전체, 그리고 16일의 일부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6:21; 누가복음 9:22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20에서 예수님이 “잠든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첫 열매의 단, 한 줌이었으니, 곧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으로 부활하신 바로 그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18). 이 첫 열매 단을 “흔드는” 상징적인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수용을 나타냈으며, 그 결과로 신성한 능력에 의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일곱 안식일과 하루, 즉 50일을 더하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납의 날이었던 것처럼, 오순절은 더 큰 첫 열매, 즉 “영적인 밀”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납의 날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첫 열매의 반열에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의 반열에 속한 “첫 번째”이셨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 또한 “일종의 첫 열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말하며, 그들을 “사람 중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열매”라고 묘사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봉헌은 오순절에 시작되었으며, 그날 교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분께 봉헌된 것으로 상징적으로 흔들려 보여졌습니다.

오순절을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 세 가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의 정점이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랜섬으로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랜섬의 대가였다. (디모데전서 2:5,6). 이 놀라운 사건들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19-21). 세 번째는

오순절, 즉 장차 세워질 교회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된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을 둘러싼 사건들은 수없이 많다. 그것은 단순히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날만이 아니었다.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그 혜택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여질 만한 헌신으로 바친 모든 이들에게까지 미쳐 왔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채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녔습니다(사도행전 1:15).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드린 헌신을 받아들이셨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희생의 삶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했고, 성령에 의한 중생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1; 12:1; 베드로전서 1:3; 고린도후서 5:17

오순절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대한 의미를 지녀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 시작된 것을 상징했습니다(빌립보서 3:14). 또한 오순절은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헌신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9). 이는 그 제사장직의 각 예비 구성원에게,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것들—즉, 그들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의롭다 하심, 희생의 시작,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을 기회가 이제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순절 이후로, 왕 같은 제사장직의 각 예비 구성원은 그때 일어난 사건들 덕분에 그와 동일한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오순절에 교회를 시작으로, 인간을 하나님과의 조화와 은혜로 되돌리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로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랜섬의 대가에서 비롯된 혜택이 하나님에 의해 인류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외적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4:16-25

성령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해하는 것은 오순절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핵심입니다. 성령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해, 성령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영향력입니다. 성령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므로,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 즉 성령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러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성령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새 삶에 생명의 불꽃을 불어넣고, 양육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영향력과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고린도후서 5:17). “영(spirit)”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프뉴마(pneuma)’에서 유래했으며 “숨”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성령의 정의를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그것은 육체에게 있어 생명의 숨결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육체적인 생명의 숨결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육체에서 숨결이 떠나면, 몇 분 안에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영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새 삶은 살아갈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으며,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과 관련하여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불꽃이나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성령 강림을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센 폭풍 소리와 같은 소리”, “불꽃이나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함”과 같은 외적인 현상으로 나타내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는 증거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때 예루살렘에는 온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 중 하나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여행해 왔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도들을 움직여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혹은 그들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5, 6). 많은 사람이 놀라워하며 이 일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도들이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요엘과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아름다운 증언을 전했습니다(사도행전 2:12-40). 그 증언의 결과는 사도행전 12:4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약 삼천 명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둘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류 역사상 전례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 능력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28-30에서 이러한 은사 중 일부를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초기 교회와 사도들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엄청나게 드러낸 것이었으며,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더 큰 의미

이러한 능력의 발현이 아무리 비범하고, 은사들이 아무리 감동적이었으며, 하루 만에 3천 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교회에 더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의 더 큰 의미는 성령의 주된 사역, 즉 내면적인 사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개인 성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성장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27 오순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에 의해 각 제자가 개인적으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 구절들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한 후,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 ” 즉 “너희는 더 나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더 훌륭한 길을 보여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더 뛰어난 길”은 바로 다음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주제였으며, 사도는 이 장에서 오로지 사랑이라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총합이며,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성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갈라디아서 5:22, 23). 이것이 바로 더 뛰어난 길이자, 성령의 더 뛰어난 역사이며, 오순절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바울이 사랑이라고 요약한 성령의 내적 사역은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담겨 있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장에서만 “성령” 또는 “영”이라는 표현이 약 20회나 언급됩니다. 여기서 묘사된 성령의 사역은 열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로마서 8장 1, 2절은 성령을 “법”, 즉 생명의 법으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법인 성령을 가져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새 피조물은 죽게 됩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성령이 생명의 “법”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을 그들이 이전에 속해 있던 다른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도 말합니다.

2. 성령은 사람이 행하고 생각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로마서 8:4-6은 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3. 성령의 중생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골로새서 1:27)이라는 사상을 구현합니다. 로마서 8:9, 10은 이를 암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 또는 바울이 추가로 언급한 “그리스도의 영”은 반드시 그분의 제자들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영, 곧 그분의 영향력입니다. 요한일서 2:27

4. 성령의 네 번째 사역은 로마서 8:11에 묘사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 곧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며,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이 될 기회를 주시며, 결국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에게 “생명관”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0

5.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타락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요, 그러나 성령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6.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로마서 8:1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좁은 길의 매 단계마다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심으로써 이러한 돌보심을 이루십니다. 한 찬송가 작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빛 가운데 홀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어둠 속을 걸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즉 그분의 섭리적인 영향력과 권능이시기 때문입니다.

7. 성령에 의한 중생은 자녀됨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아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얼마나 확고히 확신시켜 주시는지요!

8.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헌신으로 주님께 드린 우리의 영, 마음, 동기가 말하자면 하나님과 같은 ‘파장’에 있다는, 즉 성령과 함께 “증언”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둘이 함께 증언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의도하시는 것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9. 성령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현세에서의 시련과 “신음”을 함께 겪지 않도록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으며, 아마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육신의 시련과 신음을 겪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러한 면모는 로마서 8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자로서,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될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10. 로마서 8장 26,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뜻[그리스어: 성향]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 기도하기 어려울 때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구절이 말하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즉 새 피조물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고의로 저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데살로니가전서 5:19). 우리는 이 점에 있어 조금이라도 고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조차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30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을 가능한 한 가장 충만하게 얻기 위해,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에베소서 5:18)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으로, 우리는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와, 희생과 고난,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 대한 봉사의 길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삶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7일 강의

데보라와 바락

핵심 구절: “그 때에 라피도스의 아내인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야자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녀에게 올라왔더라.”

사사기 4:4,5

선정된 성경 구절:

사사기 4:1-24; 5:1-3

80년 동안 평화와 축복을 누리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야빈 왕과 그의 장군 시스라를 앞세운 가나안 사람들의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건한 한 여인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졌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였다.

본문의 핵심 구절에 언급된 대로, 데보라는 “야자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지혜와 정직함, 그리고

용기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파악한 데보라는 용사 바락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타보르 산으로 올라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만 명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군중을 네게로 이끌고 오리니,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사사기 4:6,7

바락은 이 말씀을 전에 들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이제 드보라의 격려를 받아 행동할 때가 되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그의 믿음을 북돋우고 지도력을 북돋우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가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나도 가겠으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도 가지 않습니다.” (사사기 4:8). 바락의 망설임은 그의 믿음에 약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겠다고 선언했으나, 그로 인한 승리와 영광은 전적으로 바락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으나, 네가 떠나는 이 여정은 네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임이라.”라고 말했다. 사사기 4:9

시스라와 그의 군대, 그리고 900대의 병거를 상대로 한 전투는 완전한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도보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또 다른 용감한 이스라엘 여인이 그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제 도망자가 된 시스라를 자신의 천막으로 초대하여 피신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마시게 한 뒤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사사기 4:13-19 전투로 지친 시스라는 깊은 잠에 빠졌다. 야엘은 한 손에는 천막 말뚝을, 다른 손에는 망치를 단호하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압제자가 잠든 천막으로 들어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아 넣었다. (사사기 4:21,22).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는 완전해졌고,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시스라는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데보라와 바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데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본보기가 됨으로써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락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57

6월 14일 본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다

핵심 구절: “한나가 임신한 지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으며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라고 하였다.”

사무엘상 1:20

선정된 성경 구절:

사무엘상 1:1-28; 2:1-11

이스라엘에 왕이 있기 전,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페니나와 한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페니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다. 매년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으며, 제물의 일부를 가족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두 배의 몫을 주었다.

그러나 페니나는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조롱했고, 이러한 잔인한 행동은 해마다 계속되어 한나는 울며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마침내 어느 해,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종의 비참한
처지를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며, 이 종을 잊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평생 주님께
바치겠고, 그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1:1-11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듬해에 그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사무엘상
1:19, 20). 아들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한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이었다. 이는
“특별한 서원, 곧 주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서원”이었다. 이 서원의 일환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외에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포도나무에서 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었다. 이
서원을 한 사람은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시체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 (민수기 6:1-21).
사람이 나사렛 서원 아래에 있는 동안 내내, 그 사람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였다. 민수기 6:8

한나(Hannah)라는 이름은 “은총” 또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8,9). 한나는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곤란할 때 기도했습니다. 또한 자녀인 사무엘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바칠 때처럼 감사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1-11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며, 너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과 신뢰를 두며, 기쁨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며, 그분의 섭리가 허락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한나는 하나님께 큰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사무엘을 평생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며 살도록 바쳤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 전념한 신자들도 이 현세 악한 세상의 “죽은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평생의 서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신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성령의 열매와 은혜를 키워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3:27; 에베소서 4:24; 골로새서 3:10-17

6월 21일 수업

요나단과 다윗 - 신실한 친구들

핵심 구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둘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와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하였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갔다.”

사무엘상 20:42

선별된 성경 구절:

사무엘상 18:1-9; 19:1-7; 20:1-42

수 세기 동안 사사들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러한 왕이 갖춰야 할 자격을 제시하셨다(신명기 17:14-20). 사무엘은 사울 치하의 왕국 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나중에 사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빠앗길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 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13,14). 또한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를 기름 부어라.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명령하셨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 또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12,13)

이 기름 부음의 결과로, 다윗에게는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동시에 사울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왕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게 하여, 고통받는 왕에게 음악으로 위안을 주게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봉사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자신의 무기 담당자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6:14-23

이 일련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결과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베푸는 위대한 봉사에 보인 반응이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이 하나로 통했고, 요나단은 그를 자기 영혼처럼 사랑했다. ...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였으므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사무엘상 18:1, 3). 이처럼 우리는 본문 구절의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상호 사랑에 기초한 우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정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후, 백성들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8:7) 사울은 격분하여 다윗을 모해할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자, 사울은 그를 제거할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사무엘상 19:1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으며, 네 아들 중 장남으로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최우선 충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있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요나단은 사울에게, 조국에 귀중한 공로를 세웠고 변함없이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한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요나단의 말은 성급한 성미의 아버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울은 맹세를 통해 적대적인 뜻을 접겠다고 약속했다(사무엘상 19:6, 7). 이처럼 요나단의 중재로 일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다윗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일로 돌아갔다.

앞서 살펴본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 귀중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13

6월 28일 수업

용감한 선지자 아모스

핵심 구절: “내가 양 떼를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며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7:15

선정된 성경 구절:
아모스 1:1; 2:6-16; 3:1-15; 7:10-17; 9:11-15

아모스는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약 6마일 떨어진 테코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열 지파 왕국의 영토로 들어가 그곳에서 사역의 대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닥칠 끔찍한 재앙을 예언했으며, 그의 신실함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모스 2:6-16; 7:10-17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을 내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벌하리라.” 그러자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아모스 3:2, 3).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점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그들에게 전적인 충성을 기대하셨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제9장, 즉 마지막 장의 11-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3-18절에서 이 예언을 인용하며,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의 모든 부분에 대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책임 아래 있으며,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모든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55:11

오늘날 주님의 백성은 아모스처럼 침묵으로 물러서서는 안 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특히 의와 평화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의 결론과 야고보가 이를 인용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남은 자들”이 주님을 부르고 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16, 17

곧 도래할 이 약속된 때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웃에게 가르치거나 서로 ‘주님을 알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8:11, 12). 이 약속들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그다음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온 인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 즉 “왕 같은 제사장”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9). 또한 이때 “땅이 여호와와 의 지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서 “길 가는 자들,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그 길에서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9; 35:8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망입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늘 감사해야 하며,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 로마서 6:23).
죄와 살인, 증오, 혹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4:6-7).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 말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기쁨을 누렸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증된 약속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은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음이라’ 하셨다.”**
창세기 17:3-5

창세기의 기록은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페이지들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임할 축복의 기초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성경 전체의 기록과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고찰에서는 창세기 16장, 17장, 18장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세 장에서, 후에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된 아브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할 때,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후손, 곧 씨를 갖게 될 것이었다. 이 약속이 조상에게 처음 주어졌을 때, 그의 아내 사래(나중에 사라라 불림)는 아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1

기다림은 길었다. 우선, 약속이 주어진 시점부터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제 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사라는 불임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꽤 들어, 약속된 씨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씨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깊이 곱씹으며, 가능하다면 주님과 협력하고자 했던 그녀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이 아브람의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되도록 제안했다. 오늘날의 기독교적 기준으로는 이것이 비윤리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부적절한 일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사래나 아브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으나, 이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를 약속된 후손으로 인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6:2,3

그러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래의 제안은 이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알게 되자마자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높이 평가되었기에, 하갈은 자신이 사래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16:4

사라는 이 상황을 아브람에게 알리며 “내 잘못은 네게 있다”고 외쳤는데, 이는 일어난 일의 책임을 아브람에게 돌리려는 시도였다(창세기 16:5). 사라는 처음에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되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의 양모가 되고, 하갈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물러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제 사라는 하갈의 태도를 보고 그런 식의 합의는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으며, 아브람을 위해 자손을 얻기 위해

이 방법을 제안했던 것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브람 또한 일이 그들이 바랐던 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라이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녀가 하갈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처리하도록 허락했다. 창세기 16장 6절에 따르면, 사라는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는데, 아마도 그녀의 의무와 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그랬을 것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당시 시행되던 법에 따르면 하갈을 팔아 없애는 것은 불법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마도 하갈이 가정을 떠나 도망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짐을 늘린 것이었을 텐데, 하갈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개입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 즉 사자가 “수르로 가는 길가의 우물가”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수르는 이집트와 가나안을 가로막는 거대한 요새화된 성벽의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갈은 이집트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천사를 통해 그녀에게 돌아가

여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6:7-9

그때 천사가 놀라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지극히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리라. ...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창세기 16:10,11) 역사가들은 중동 아라비아 국가들의 인구 상당 부분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데 상당히 동의하는 듯하다.

하갈은 주님의 천사가 찾아온 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그녀를 만난 우물은 베엘라하이로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나를 보시는 살아 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하갈은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깨달은 듯했고, 비록 아브람과 사래에게서 도망쳤지만 아브람의 하나님께서는 도망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여주인에게로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창세기 16:13-16

이 경험에는 사라이를 위한 교훈이 있었으며, 사실 주님을 섬기려 애쓰는 모든 이에게도 교훈이 되었다.

그것은 시련을 피하려 애쓰거나 억지로 떨쳐내려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이다. 사래의 믿음 부족은 그녀의 삶에 심각한 시련을 가져왔고, 그녀는 하갈을 강제로 쫓아냄으로써 그 시련을 없애려 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경험을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셨다. 아마도 그 경험은 하갈의 태도도 누그러뜨렸을 것이다. 어쨌든 성경 기록에 따르면, 두 여인은 그 후 15~17년 동안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언약 재확인

13년이 지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이 구십구 세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아브람이 “온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나, 바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아브람은 타락하고 죽어가는 인류의 일원이었기에, 행실의 온전함은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가능한 일이며, 주님께서는 이보다 덜한 것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창세기 17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전에 맺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시고 그 내용 중 일부를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이름에 부여된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주님께서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언약의 원래 선언은 약속된 씨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보장했으나, 이 구절들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그 생각을 더욱 확장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용어는 생명을 주는 이를 의미하며, 이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민족들이 받을 복이 곧 생명의 복임을 설명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그 “후손”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로마서 4:16-18). 이 후손 중 일부는 육신적인 후손이 될 것이고, 일부는 하늘의 후손이 될 것이나,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 반드시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17:6). 수세기 후,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주된 성취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즉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6, 27-29; 골로새서 1:18).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며, 그의 교회는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왕으로 통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10; 20:6

창세기 17:8은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그네” 즉, 거류자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죽었고, 이삭이나 야곱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8-10,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회복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명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 중 일부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 속에서 혼란과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할레—하나님 언약의 표징

창세기 17:10-14에서, 할레에 관한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할레를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향해 행했던 믿음의 “표징”이자, 동일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위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11, 12

신약성경에서 할레는 마음의 순수함과 목적의 청결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직하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문자 그대로의 할레 의식을 행할 것을 요구받지는 않지만, 그들은 마음을 할레하고 육체의 모든 불순물을 버리라고 권고받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할레는 마음의 할레요, 영으로 하는 것이요, 글자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레로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림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레를 받았느니라.” 로마서 2:29; 골로새서 2:11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할레인 것은 적절하다. 할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신약성경의 설명을 고려할 때, 이는 주님 앞에서 마음과 동기의 순결, 그리고 그분의 약속과 율법의 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브라함 언약 아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라의 이름 변경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15절과 16절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계시하셨는데, 이는 그녀가 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므로 “귀부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왕들의 어머니로 여겨지는지를 설명하며, 이는 그녀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자라나는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상징적인 아버지인 바로 그 왕들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왕들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 천 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22-31

약속받은 이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큰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했는데, 그러한 순간

중 하나가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불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약속하셨을 때, 그녀가 당시 훨씬 젊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임인 데다 그녀는 아흔 살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웃었습니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심했음을 보여 주며, 땅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슈마엘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했다. 이 간구의 뜻은 그가 약속의 후손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살아남아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시켜 주셨으나, 약속된 후손에 관해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이삭이 될 것이며, 그가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 창세기 17:18-21

21절에 따르면 이삭은 “내년 이맘때”에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의 예언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으나, 그동안 그 기다림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징후도 주어지지 않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다림을 통해 대부분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께 “이 때에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다시 세우시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7

종종 기대하던 사건이 일어날 때가 가까워지면, 주님께서서는 그 비밀을 당신의 종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데 오랜 세월을 수고했으나, 홍수가 언제 닥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후면 내가 비를 땅에 쏟아 부으리라.” (창세기 7:4).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께서 “내년 이맘때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주님께서서는 그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확실한 정보를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17장의 마지막 구절들에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표”인 할례에 관한 주님의 지시에 신속히 순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날에”라고 기록된 대로, 그는 자신과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하여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할례하게 하였다. (창세기 17:23-27). 성경에는 주님께서 신속한 순종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우, 그의 신속함은 또한 사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으며, 언약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세부 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의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맘레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했을 때 그와 함께했던 아모리 사람이었다(창세기 14:13). 창세기 18장 1절에서 “맘레의 평원”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맘레에게 속한 평원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단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맘레를 비롯한 많은 가나안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나중에 이 나타나심은 주님의 사자로 활동한 “세 사람”의 방문으로 밝혀진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하였다.”(, 창세기 18:2). 이러한 표현 방식은 성경에서 주님께서 인류와 교제하실 때 꽤 자주 사용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수 없다. (출애굽기 33:20).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실 때, 그분은 그들이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바라신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세 사람”은 천사, 즉 영적 존재들이었으며, 족장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육체적 형상을 취한 것이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천사로 지칭하며, 암시적으로 아브라함의 환대를 본받을 만한 모범으로 제시한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 어떤 이들은 이를 통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2

아브라함의 환대

아브라함이 뜻밖의 손님들을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대접하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가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번화한 도시의 대로변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원’ 한가운데, 천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막 앞을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날이 며칠씩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찾아왔고, 그들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임을 암시하는 모든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것이 특별한 사건으로 보였고, 그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무언가를 처리하고 싶을 때 지시를 내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이 특별한 방문객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손질하여 식사용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한 젊은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8:6,7

아브라함은 세 사람의 방문에 대해 어느 정도 흥분을 드러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가 “가축 떼에게 달려가” 직접 먹기에 부드러울 것을 알고 있는 송아지를 골랐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한 방문은 아브라함에게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설명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 남자를 그들이 밝힌 신분 이상의 존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어쨌든 그는 친절하고 관대한 주인임을

증명했으며, 사라도 기꺼이 그와 협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에게 전한 메시지

손님들이 식사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서서 시종드는 역할을 맡았다(창세기 18:8). 식사 중에 세 사람은 사라의 행방을 물었다. 사라는 식사 준비를 도왔지만, 그때까지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자 방문객들의 대변인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다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창세기 18:10

분명히 천막은 그 사람들이 식사하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다.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 즉, 우리가 말하듯이 “혼자서 웃었다.” 그러나 천사는 그녀가 웃은 것을 알고 있었고, 나중에 그 일을 언급했을 때 사라는 부인했으나, 천사는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라고 말했다. 창세기 18:12-15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교훈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이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약속의 성취에 대한 책임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와 지난 수세기 동안의 교회는,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 모두 기뻐해야 합니다. 비록 모든 상황이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19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들과 그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관련된 일들에 대해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넓게 말해, 진리로 깨달음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 인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정신을 지니고 하나님의 계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그 계획에 대해 열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소돔 성의 극심한 악행 때문에 그 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아브라함이 그 성의 백성, 특히 그곳에 거주하던 자신의 친척인 롯과 그의 가족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겨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18:17,18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적 한계를 배려하시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의역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매우 악하다는 보고를 들으셨기에 직접 내려와 조사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보고된 대로 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천지의 하나님께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지상에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말씀하신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생각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특히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그 도시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로운 사람이 오십 명만 발견된다면 그 도시가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수를 줄여 나갔을 때, 아마도 롯과 그의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23-32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이 숫자를 계속 낮추는 동안에도 그의 간청을 들어줌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인내심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뜻도 드러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필요한 10명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그 도시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창세기 19:24, 25

이는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여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 도시들은 멸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23, 24).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왕국의 심판의 날 기간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행실을 고치며, 생명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그들도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곧 성취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